

# 경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사회성 향상과 재능 발현을 위한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 연구

A Study of Art Museums Convergence Education Guidelines Model for  
Social Improvement and Talents Development of  
Mild Autism Spectrum Disability

주 저 자 : 양연경 (Yang, Yeon Kyoung) 상명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랩 연구소 연구교수  
ykyang@smu.ac.kr

---

접수일 2023. 2. 25. / 심사완료일 2023. 3. 15. / 게재확정일 2023. 3. 18. / 게재일 2023. 3. 30.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2754)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B5A16082754)

## Abstract

In order to establish an effective museum convergence education guide and model, this study first sought ways to redefine the local and social role of art museums for the people with autism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cond, the effectiveness of art enjoyment, mental recovery, and self-exploration were analyzed, an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family guardians in art museum programs. Third, various attempts and new role implications were derived to expand the social convergence platform of art museum exhibition-linked education. Fourth, an integrated model such as communication, healing, empathy, sharing, and support was established in the guidelines for convergence education at the Museum of Art for the Disabled in the Autism Spectrum.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iveness by analyzing the operation of two curriculums, Dreamcatcher Craft Class and Ribbon Embroidery Family Frame Collaboration Class, in line with the theme of ICOM Museum Week. As a result of the study, this study presented physical and social solutions to increase accessibility to art museums. It also suggested the need for a dual strength that can lead to art museum education. In particular, it emphasized the need for art museum,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and public institutions to cooperate with governance. In addition, by studying the necessity of active learning in art museums, the needs to expand guidelines for integrated art museum convergence education was suggested.

## Keyword

Museum Education(미술관 교육), Museum Program Model(뮤지엄 프로그램 모델), Mild Autism Spectrum(경증 자폐 스펙트럼)

## 요약

본 연구는 효과적인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와 모델 설정을 위해, 첫째,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미술관 참여 활동의 기회를 넓히는 미술관의 지역적, 사회적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가족 보호자들의 미술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예술 향유, 문화 소비 기회의 확대, 마음 회복, 자아탐색 등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미술관 전시 연계 교육의 사회적 융합 플랫폼 확장의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역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에서 소통·치유·공감·나눔·지지 등의 영향력이 반영된 통합 모델 유형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교육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는 미술관 현장 수업 리빙랩과 감상 활동의 진행을 통해 ICOM 뮤지엄위크 주제에 맞추어 드림캐쳐 공예수업, 리본자수 가족액자 협업수업 2개 커리큘럼 운영을 분석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본 연구는 미술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 사회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인 돌봄의 공백이 미술관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중 강점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특히, 미술관과 장애인 단체, 공공기관이 거버넌스로 협치하는 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 탐색을 돋는 미술관 액티브 러닝의 필요성을 연구하여 뮤지엄 현장에 적용되는 통합형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확대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목차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 2. 자폐 스펙트럼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이슈 와 뮤지엄의 역할

- 2-1. 발달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사회적 연결성의 문제
- 2-2. 문화적 포용 중심의 뮤지엄 프로그램 연구

### 3. 장애인 및 가족 참여형 미술관 융합교육 사례 분석

3-1. 장애인 돌봄 가족 대상 예술치유 미술관 프로그램 연구

3-2. 장애인 가족 참여형 통합활동 미술관 프로그램 연구

### 4. 경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미술관 융합

## 교육 가이드라인 모델 수립

4-1. 미술관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자 평가 분석

4-2. 장애-비장애인 통합활동형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 제안

## 5.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립자활원의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인 66%를 차지할 정도로 아동 및 청년층 비율이 높다. 이는 자폐성 발달장애의 특성에 따라 심혈관질환, 사고요인, 신경계 뇌질환 등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반영되어 집계된 것이다.<sup>1)</sup> 국립특수 교육원이 2009년에 정의하는 '발달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 영역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일탈하여 이것이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라고 정의하며, 발달장애인은 영·유아기부터 언어, 심리, 행동 등의 발달을 위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sup>2)</sup> 최근에는 장애아동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교내 통합환경 중심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sup>3)</sup> 가정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번아웃은 심리적 위축감, 우울감, 신체적 만성 피로감이 여러 요인들로 겹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심신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1) 한국일보, "1071, 발달장애를 딛하다", 2022년 10월 4일 보도, 1부 기사 요약. (2023.01.29 검색)  
<https://v.daum.net/v/20221004200003491>

2) 오로사, 조영아,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의 문제행동, 사회적 지원, 성격강점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20(3), 2021, p.6, 부분 요약.

3) 박정미, 통합교육환경에서 자폐 범주성 장애아동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27, 부분 요약.

고, 장애인의 건강과 사회성 회복의 돌봄 과정에서도 악순환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은 통합형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의 참여 기회가 매우 적어서 이러한 공백을 박물관, 미술관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개발하는 추세이다.<sup>4)</sup>

국내 현황은 이처럼 박물관, 미술관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장애-비장애인 통합활동 프로그램이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 중심의 일부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로 시행하는 실정이다. 자폐 스펙트럼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관람객들이 동일한 전시 공간 내에서 감성을 교감하며 작품을 감상하거나, 도슨트의 전시 해설을 들으며 유의미한 정보를 습득하는 미술관 활동이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증 자폐 스펙트럼 범주의 발달장애인 단독으로 전시 티켓을 제시하고 독립적으로 미술관의 전시 감상과 교육 활동을 참여하는 행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주로 가족을 동반하거나 활동보조사가 동행하여 함께 참여하는 문화소비 활동의 현실을 면밀하게 스크리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일상적인 생활 문제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돌발적인 행동 문제와 사회적 교류 활동이 어렵다는 점이 큰 관건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술관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예술과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와 예술적 치유 및 마음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장애-비장애인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폐성 발달장애인 및 돌봄 가

4) 양연경, 경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미술관 교육 접근 방향 연구, 2022 부경대학교 초청 국제디자인 학술발표,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2, p.19

족들이 다양한 목적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들을 제시한다.

첫째,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미술관 참여 활동의 기회를 넓혀주는 적절한 채널을 확보하고 전시 감상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미술관의 지역적,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한다.

둘째, 장애인 가족들의 집중적인 돌봄 노동과 자유로운 개인 시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돌봄 보호자들의 미술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예술 향유, 문화 소비 기회의 확대, 소통과 교감, 마음 회복,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아탐색의 기회 제공을 통한 효과성을 분석한다.

셋째, 미술관 예술 활동 행사의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통해 장애·비장애 통합형 프로그램의 기회를 확산하고 가족 및 이웃 간 교류의 장으로서 미술관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사회적 융합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기존의 미술관 융합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서 적용되는 소통·치유·공감·나눔·지지 등의 영향력이 반영된 통합 모델 유형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에 반영하여 사회성 증진과 예술적 재능의 성장을 통한 성년기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 플랫폼의 공공성 역할 모델을 함께 제안한다.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등록사립미술관, OO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협업 관계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및 돌봄 가족 통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례를 현장 리빙랩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완화되면서 2021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주간'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의 미술관 프로그램 참여 현장 리빙랩 탐구를 기본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 기간 내 국제박물관협의회 (ICOM)가 세계박물관대회를 개최하는 기간이 함께 병행되는 시점이었던 상황을 함께 반영하여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전 세계적인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포용 이슈를 면밀하게 다루는 점을 함께 감안하여, 글로벌 포용성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의 문제→국내 뮤지엄의 포용적 문화예술 서비스 재정립→지역 사회에서의 문화예술 중심 플랫폼 역할→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등으로 세부적 범주를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추어 미술관 프로그램 1회당 최대 참여 인원을 16인

이내로 제한하여 현장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5개월 간 총 65명의 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미술관 프로그램 사후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장애·비장애 통합형 현장 활동 참여를 통한 소통의 확대와 상호간 이해공감력 확대, 가족 및 이웃 간 교감과 교류 기획 확대 유대감 형성, 장애인 돌봄 가족의 심리적 치유와 마음 회복을 통한 미술관의 예술치료 매개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즐기는 문화 소비'에서 '공감하는 문화생활과 사회성 향상의 기회 공간'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포용성과 특수성을 균형있게 갖추는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을 보완하였다.



[그림 1]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그림 1]은 본 연구의 주요 범위와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큰 주제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지정한 <박물관의 미래: 회복과 재구상>이라는 기본 주제를 토대로 하여 전국의 22개 박물관, 미술관이 기관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내에서 서울 종로구 소재의 A 미술관이 발달장애인 및 돌봄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미술관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분석한 세부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의 참여 과정을 통한 효능감, 장애인 돌봄 가족

들의 미술관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치유와 공감의 회복 등을 중점으로 교육 참여자들의 특성과 자기 회복의 단계 과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진행은 장애인 돌봄 가족 보호자 8명, 발달장애인 미술 프로그램 운영 유경험자 전문가 집단 12명, 보조강사 그룹 6명, 총 26인의 의견을 취합하여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사회성 향상, 가족 및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도 향상, 잠재적 예술재능 발현 및 경제적 독립 훈련 등을 위한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 2. 자폐 스펙트럼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이슈와 뮤지엄의 역할

### 2-1. 발달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사회적 연결성의 문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표현 등은 자기결정의 완전한 인정 범위, 타인의 개입 허용에 대해 모호한 문제가 있다. 논리력, 판단력 부족 때문에 장애인 본인 결정의 의사결정이 무시될 수는 없으며, 그들의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sup>5)</sup> 특히 장애인은 가족들의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외부의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사회성을 학습하게 되며, 다양한 경험의 확대와 예술 체험의 기회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림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2021년에 시행된 특수학교 진로전담 교사들의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은 교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의 부재(가이드라인 부재), 특수학교 중등과정에만 제한된 진로상담, 발달장애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의 어려움 등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렇듯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역은 신변자립, 지역사회 이용, 대중교통 이용, 사회적 참여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이러한 준비 과정들을 일대일 상담이 가능한 자체 공간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sup>6)</sup>

다양한 문화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예술 향유를 통한 여가 활동,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확대는 아동과 청소년의 진로 선택과 자기계발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매개요인이 되며,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독립적인 인격체를 갖추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기본교육과 돌봄,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형성 체득, 다양한 대외적 경험의 기회를 통한 문화적 소양 기르기, 공교육을 통한 기초 학습, 자립을 위한 훈련과 연습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완성된다.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여가 활동은 복수응답 중심으로, TV보기 88.2%, 기본 휴식 72.8%, 컴퓨터 이용 18.2%, 취미/자기개발 15.0%, 순으로 사회적 여가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 장애인의 여가 활동은 공간 설계, 외출 이동 편의·의사소통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려는 장애수용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sup>7)</sup> 여가 활동은 문화생활과 사회적 교류를 중심으로 관계 맺기 및 자기성찰을 통한 자아의 재발견과 개인이 몰입행위 등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있어 물리적인 움직임과 공간의 활용, 심미적인 예술감상을 통한 공연과 전시 중심의 콘텐츠 수용 등은 문화예술 기반의 사회적 활동으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가능성과 행동적 실천 가능성이 한계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이 오늘날 풀어야 될 과제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사회성 확대를 위해 유연한 매개가 될 수 있는 공간은 박물관·미술관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전시 감상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개인 활동과 타인과의 교류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 장에서 장애인의 뮤지엄 참여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포용적 장점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뮤지엄 프로그램의 유형과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2-2. 문화적 포용 중심의 뮤지엄 프로그램 연구

보건복지부의 '2021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사업 안내'의 현황을 보면 '주간 활동 서비스'와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함께 시행됨을 알 수 있다. 주간 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문화 활동, 사회적 교류, 예

5) 김고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부모개입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2(1), 2021, pp.330-331, 요약 재구성.

6) 박지현, 김동일,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지적장애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24(1), 2022, pp.65-67, 연구 결과의 요약 재구성.

7) 에이블뉴스, 2021년 4월 8일 보도, (2023.01.29 검색)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16>

술적 창의력 향상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자폐성 발달장애인 이동 및 청소년의 교육형 문화 활동을 돋는 학교 연계형 공모사업 중심의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다.<sup>8)</sup>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루틴을 통해 불확실성과 혼돈을 줄이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는 특성이 강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강박적 충동을 느끼며 민감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sup>9)</sup> 루틴의 시각정보화는 미술관에서 기획하는 시각적 사고 전략(VTS) 중심 전시 감상 서비스가 장애인 관람객들에게 효과적인 문화참여 활동을 돋는 긍정적인 패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관람 및 감상과 탐색의 기회는 발달장애인들의 긍정적인 루틴 변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의사 표현을 시각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매년 5월에 개최하는 ‘세계 박물관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시민의 문화 향수를 고취시키고 미래 뮤지엄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박물관 미술관 주간(Museum Week) 프로그램<sup>10)</sup>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와 연계하여 대대적인 뮤지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sup>11)</sup> 2021년은 “박물관의 미래: 회복과 재구상”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뮤지엄 프로그램이 팬데믹을 극복하고 문화적 경험과 공유방식의 변화를 통해 이색적인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기회들이 많아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뮤지엄 프로그램의 다양한 접근성과 팬데믹 회복 및 재도약의 의미를 균형있게 반영한 장애·비장애 통합형 미술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미술관 융합교육 프로그램 현장 평가와 교육적 효과성·효능감을 연구하였다. ‘2021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행 기간에 맞추어 서울 소재 A 미술관의 <꿈으로 이어가는 봄날의 미술관: 마음열기+치유공감>은 발달장애인 돌봄 가족들과 경증 자폐 스펙트럼 그룹 성인 발달장애인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전시 연계 교육 활동

8) 이민경 외 6인, 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연구: 대안 확대와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47, 2021, pp.170-171, 요약.

9) 김성남, 정유진, 소통과지원연구소, 2020, pp.44-46. 요약 재구성.

10) ICOM 연계형 ‘박물관·미술관 주간’ 행사.  
<https://www.뮤지엄위크.kr>

11)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Museum Week’ 공식행사가 연계되어 매년 ‘세계 박물관의 날’ 주간에 다양한 뮤지엄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있다.  
<https://www.nmf.or.kr/user/main/main.do>

으로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 본 프로그램은 미술관이 지역 연계 활동으로 사회적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장애인 가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립 장애인복지관 및 지역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연계하여 기획되었으며,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들의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돌봄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환기하면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치유·공감·소통의 목적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2] <꿈으로 이어가는 봄날의 미술관: 마음열기+치유공감>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과 방향성

[그림 2]는 A 미술관의 뮤지엄위크 연계형 특별 프로그램의 주요 키워드와 구체적인 기획 장르의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다. ‘회복과 재구상’의 대주제 흐름에 맞추어 ‘치유와 회복’, ‘사회적 연대와 지속가능성’ 등에 큰 중점을 두고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또한 체험 연계형 교육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면서 풍부한 해설과 대화형 도슨트 서비스 전시 관람 시간을 함께 병행하였으며, 장애인과 돌봄 가족 중심의 참여 수업인 점을 고려하여 부모 상담과 예술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목적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미술관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A 미술관, 구립장애인복지관, 지역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이 협의를 거쳐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정기 워크숍과 미술관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복지관 및 센터 현장에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미술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이 함께 동반 참여하는 연계형 프로그램은 미술관 전시장에서 작품을 직접 만져보고 느끼면서 감상 활동에 참여하고, 해당 현장에서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 3. 발달장애인 가족 참여형 미술관 융합교육 사례 분석

#### 3-1. 장애인 돌봄 가족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 연구

A 미술관에서 진행된 <꿈으로 이어가는 봄날의 미술관: 마음열기+치유공감>에서 “희망을 담는 나만의 드림캐쳐” 세부 프로그램은 장애인 돌봄 가족들 및 활동 보조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A 미술관이 공예·디자인 전문 뮤지엄으로 염색공예 및 초경(草莖)공예 등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컨셉에 맞추어 드림캐쳐 수공예 작품을 손수 제작하고 미술관 전시를 감상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

[표 1] “희망을 담는 나만의 드림캐쳐” 미술관 교육 단계별 목표와 프로세스

단계별 접근	세부 활동 내용	효과와 목표
기본탐색	미술작품 전시 감상과 새로운 작품 창작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모색과 연구	마음열기의 시작
표현의 시도	색상 실, 원형틀(프레임), 장식 재료 선택 과정과 의미 부여를 통한 개인성향의 표현 및 돌봄 자로서의 심리(감정) 고백	치유(1): 감정 표현과 고백
몰입과 집중	원 모양 형태로 그물망 제작을 진행하는 바느질 작업, 깃털/가죽끈/구슬 등의 장식 표현	치유(2): ‘나’에게 집중
감성 교감	‘나에게 쓰는 편지’: 음악 감상과 명상의 시간을 통한 편지쓰기 중심의 자아성찰 -드림캐쳐에 담는 편지쪽지	수렴: 명상/소원빌기
공감확대/ 긍정적 회복	드림캐쳐 완성 작품감상과 감상후기를 통한 교류의 시간 (작품 매개 중심의 자조모임)	회복: 극복/희망나눔

[표 1]은 장애인 돌봄 가족들이 참여한 “희망을 담는 나만의 드림캐쳐” 프로그램의 수업 참여 구성과 현장 진행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경계성 지능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기 형제 및 자매를 돌보는 돌봄 가족들도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과 함께 부모자조모임에 주 2회씩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돌봄과 교육에 대한 정보들을 나누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위로와 격려를 통해 해소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목적으로 아웃리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미술관 소장품 특징과 메인 컨셉이 반영된 수공예 작품을 제작하는 점을 메인 키포인트로 지정하여 기본 탐색→표현의 시도→몰입과 집중→감성 교감→공감의 확대와 긍정의 회복 등으로 미술관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과정을 중점으로 반영하였다.

[그림 3]은 미술관 참여 활동이 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과 지역사회 시민들의 정서적 치유를 돋는 매개의 역할이 되어주는 현장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나타낸 것

이다. 드림캐쳐는 원형 프레임을 굽은 실과 가죽끈으로 엮어 기본 틀을 구성하고, 가는 색실과 비늘을 이용해 원형 그물망 형태로 비느질 기법을 응용하여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 수공예 방식이다. ‘나쁜 꿈은 쫓아내고 좋은 꿈을 간직해준다’라는 의미를 담는 수공예 작품 제작을 통해 미술관 방문이 생소한 참여자들은 심리적 안정감과 미적 탐구의 호기심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창작하는 예술 활동에 몰입하여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는 돌봄자, 보조자로서 생활했던 일상을 벗어나 ‘자아와 ‘온전한 나’에 대한 성찰을 돋는 기회를 통해 문화적 참여 기회를 넓히게 되고, 타인과 교류하면서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삶을 공유하는 사회적 참여의 폭도 함께 넓힐 수 있다.



[그림 3] 드림캐쳐 작품 제작 현장 및 미술관 전시 감상 수업 현장

미술관의 작품 감상을 통한 새로운 공간 탐색, 개인의 심미적 창작 활동의 확장된 개념으로 ‘나에게 쓰는 편지’의 참여 기회는 ‘나’를 새로운 자아로서 재성찰하며 돌봄과 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일상을 벗어나 개인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돌봄 가족들이 장기간 감정적으로 통제되어 온 심리적 해방감과 솔직한 마음을 터놓는 치유와 회복의 효과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고, 슬픔분노·좌절·고립감 등의 부정적 감정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수렴과 회복이 가능한 상태로 이끌어줄 수 있는 점에서 감상과 체험 중심의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은 문화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가족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나눔이 가능한 입체적인 기회들을 제공한다.

미술관 현장 방문, 아웃리치(Outreach) 방식의 미술관 프로그램 참여 제공 등으로 진행되는 전시 연계 교

육 프로그램은 예술적 심미안을 높이고 교양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과 더불어, 장애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돌봄 가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시각적 표현의 외부적 표출을 통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호혜적 효능감을 함께 발현하게 해주는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함께 넓힌다.

### 3-2. 장애인 가족 참여형 통합활동 미술관 프로그램 연구

A 미술관에서 진행된 가족참여형 세부 프로그램은 “희망의 끈으로 함께 이어가는 리본자수 가족액자”이며, 구립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가족 및 기존의 드림캐쳐 제작 수업에 참여했던 돌봄자들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미술관 프로그램에 팀 단위로 장애·비장애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은 서양자수 공예용 부직포 원단을 둘근 자수틀에 끼워서 가느다란 리본 원단을 활용하여 직접 자수를 놓는 방식으로 바느질 수공예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자수공예 방식의 체험형 수업은 어린이 및 장애인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바늘에 가늘고 얇은 리본을 꿰어 자수를 놓는 스티치 기법을 응용하여, 직접 자수틀에 수놓기 방식으로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 특징이다. 다루기 쉽고 안전한 공예 재료를 활용하여 수놓기 패턴화 작업을 통해 규칙성, 섬세한 시각화 표현, 색채조화·대비 등의 창의적 체험을 작품으로 완성함으로써 성취감과 새로운 경험의 확장을 느낄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안정감, 새로운 가족 단위의 팀원들과 미술 활동으로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형성하는 긍정의 경험도 함께 체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후속 작업은 정사각형 형태의 전통한지를 다각형 모양으로 일정한 규칙에 맞게 접으면서 액자 모양을 갖추고 미리 준비해온 가족사진을 부착하면서 리본자수 틀에 꾸미기 작업으로 완성함에 따라 개인의 창작 활동이 가족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만족감과 성취감을 함께 공감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종료되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도 →기본 탐색→표현과 도전→몰입/집중→소통의 시작과 긍정적 회복 등으로 미술관 프로그램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즐기고 배우는 과정을 주로 반영했다.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수업 구성과 현장 진행 프로세스는 [표 2]와 같다. 이러한 가족참여형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평소에 자녀들이나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상담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의 적응과 대외적 사회화를 위한 훈련 중심의 상황들을

유연하게 환기해 준다. 그리고 즐거운 여가 활동과 문화체험을 통해 새로운 긍정의 경험을 확대하면서, 타인과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감을 형성하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장점도 있다.

[표 2] “희망의 끈으로 함께 이어가는 리본자수 가족액자” 미술관 교육 단계별 목표와 프로세스

단계별 접근	세부 활동 내용	효과와 목표
새로운 시도	-미술관 공간 탐색 및 자유 관람 -라포 형성(Rapport): 교육팀과 참여 가족들의 만남	마음열기
기본탐색	-도순트 해설 중심 전시감상 및 OBL 기반 작품 탐구 활동 -체험형 교육 활동 소개와 미술(공예) 재료 탐구	신뢰와 교감
표현과 도전	-작품 연출 아이디어 스케치 -리본 배색, 스티치 순서 정하기 -모형꽃, 비즈구슬, 큐빅·진주 등, 장식 재료들 선별 작업	탐색과 협력
몰입과 집중	-리본 자수 작품 제작: 재료 배열 및 바느질 스티치 연출 -전통한지(색상지)를 활용한 미니 액자 만들기(종이접기 활동) *작품 제작 과정에서 가족 심리 상담과 시각적 표현 해석 활동	치유와 수렴
공감확대/ 긍정적 회복	-리본 자수틀에 종이액자 배치 및 가족사진 부착 -완성 작품과 사진 리뷰를 통한 가족 간 자유 대화의 시간 -개인 작품 소개 및 1분 도순트 PT 진행: 발표와 친교 시간	회복



[그림 4] 리본자수 가족액자 작품 제작 현장 및 미술관 가족참여형 통합 수업 현장

[그림 4]는 미술관에서 전시 감상 및 체험형 교육 활동이 진행되는 현장을 나타낸 것이다. 리본자수 활동은 아이디어의 시각화→작품 레이아웃의 구조화→다양한 변형과 프로토타이핑→컬러 매칭과 재료의 텍스

쳐 분석·믹스 매치를 통한 표현의 다양화·작품 완성과 의견 공유 등을 통해, 장애인 참여자가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미술관의 공간적 아우라가 주는 창작의 몰입감, 팀 프로젝트 작품 제작과정의 시각적 표현, 레이아웃과 프로토타입 중심의 디자인 경험, 개인의 특성과 외형적 표현력을 발현하는 컬러 매칭과 텍스처의 다양화 등이 개인의 재능과 미술디자인 연계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미술관 활동에 있어 모든 시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은 창의적, 협업적 참여를 통해 그 결과들이 예술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전시와 교육이 유연하게 작용하여 예술 활동과 문화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여 현재의 의미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활동으로도 이어져야 한다.<sup>12)</sup> ‘라포(Rapport) 형성’과 ‘OBL 작품 탐구 활동’이 선행되는 과정은 미술관 감상 및 탐색 활동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라포 형성은 임상심리학, 상담학, 예술치료 등에서 상대방과 신뢰하며 친밀한 교감을 넓혀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OBL(Object-based Learning) 활동은 뮤지엄에서 작품 또는 유물을 실제 크기와 재질을 그대로 재현하여 실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모조작품(또는 유물)을 자 유롭게 만져보면서 공감각 기반의 감상 효과를 높여주는 체험형 교육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과 함께 참여하는 미술관 프로그램은 친밀감, 익숙함, 호기심 자극 등이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단계별 활동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본 활동에서는 섬유 원단에 자수를 놓고 한지 접기 종이액자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손으로 섬세하게 움직이는 소근육 개선 훈련, 미니액자를 만들어 사진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과 즐거운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함께 대화하고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는 교감의 확대를 이끌어내는 시너지를 발현한다. 타인과의 첫 만남에 민감한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처음 접하는 공간의 두려움과 타인과 접촉하는 생소한 상황들이 큰 스트레스가 되는데, 미술관에서의 전시 감상은 개인의 시각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즐거움과 긍정적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는 처음 느끼는 자극과 새로움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간접 치유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12) 김지원, 포용적 미술관에서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연구, 15(2), 2020, p.155, 요약 재구성.

## 4. 경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미술관 융합 교육 가이드라인 모델 수립

### 4-1. 미술관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자 평가

미술관 프로그램을 장애인 돌봄 가족 대상 집중 프로그램, 별달장애인 가족단위 참여형 통합 프로그램으로 최적의 교육 활동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성과 라포 형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환자나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돌보는 보호자로서의 가족들은 본인의 외부 이동능력에 큰 무리가 없더라도 평소 돌보는 환자 가족, 또는 장애인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집이나 병원, 치료센터 등으로 급하게 이동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이상 진행되는 공연 감상, 전시 관람, 교양강좌, 예술 체험 수업 등을 여유있게 참여하기가 매우 힘들다.

국내에서는 일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교육센터 등에 별달장애인을 동반한 가족 방문자들을 원활하게 돋고 안내하는 시설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특수학교 교사들이 외부 체험학습 협조를 요청하여 감상 및 관람 수업의 학습 일정을 수립하는 기회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별달장애인 학생들은 예민한 감각적 특성과 본인의 안정된 심리 상태에 큰 변화를 주는 낯선 장소와 대상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의 기본 루틴에 새로운 자극들이 들어오면서 불안감, 공포, 거부감 등의 감정들을 갑자기 표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별달장애인 학생들이 외부 수업을 나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절충하여 다함께 참여하고 충분히 공감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매개 공간이 곧 박물관, 미술관이 될 수 있으며, 미술관의 전시기획자에듀케이터는 자기주도 중심의 적극적인 시각적 표현과 시민들의 지역사회 연계를 돋는 문화복지 측면에서 장애·비장애 통합형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실천하는 교육전문가와 예술적 치유 매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2021년에 시행된 A 미술관의 프로그램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중심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찾아가는 미술관’ 형태의 문화활동), 장애인 가족 대상 미술관 셔틀 운행을 통한 방문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물리적 접근성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미술관 전시 연계 교육 참여 활동은 뮤지엄 서비스 디자인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전시 레이아웃과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점, 공공성을 기반으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전시 및 교육 콘텐츠 특성에 따라 시각적 요소 배치·연령별 특

성 고려·장애 유무 특수성 등을 다각적으로 반영하는 뮤지엄 서비스 접근성 고려는 개인화 중점 경험 디자인도 함께 반영되는 점이 미술관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향성을 참고하여 미술관 연계 활동의 창의적 활동과 문화복지의 역할을 최적의 균형에 맞추어 수행하는 융합교육 모델을 재구축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만족도 평가와 참여자 응답을 분석하였다.

평가 참여자들은 총 65명이며, 돌봄 가족 47명, 고교 졸업 성인 발달장애인 9명, 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경증 아스퍼거 증후군 청소년 5명, 비장애인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미술관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추가적 요구사항들을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기본적인 접근성, 프로그램 참여 방식, 미술관 정보 접근성, 체험 활동의 안전성과 용이성, 성취감과 만족감, 참여를 통한 사회성 회복력, 창의성과 자립심에 대한 자기효능감, 참여 의지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체 의견을 정리해보면, 참여자들이 공통 요구하는 기본 시향은 '접근성에 대한 요구사항의 폭이 다양했다. 본 연구의 참여형 프로그램은 지역 장애인 관련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미술관 교육 참여를 제안하여 이를 사전협의 방식으로 진행한 사례이기 때문에 서틀차량 운영과 가까운 거주자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물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거주자들은 미술관 방문 자체를 고민하는 제약도 있어 대개 아웃리치형 프로그램의 증대를 요구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참여방식'에 있어서, 비대면 참여자들 10명은 작품 제작 키트(Kit) 방식으로 제공하여 외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제공하여 교재와 온라인 영상 가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였다. 55명 참여자들은 대면 수업 방식의 미술관 현장 교육 활동을 경험하였다. 안전성과 용이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매우 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하는 그룹이 약 80% 이상 차지하였고,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 제시 사유는 공예재료 자체를 다루기 어렵고 바느질 체험 수업이 까다로웠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성취감과 만족감' 항목에서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이 1순위, 친구/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 의미가 컸다는 만족감이 2순위, 작품을 완성하고 창작하는 과정이 만족스러웠다는 성취감이 3순위 등을 집계되었다. '사회성 회복력'은 코로나 상황 이후, 대면 교육으로 체험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의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만족의 긍정적 의견이 약 85%, 불만족과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8% 제시되었다. 이는 비대면 참여를 밝힌 참가자들의 개인 상황, 현장 프로그램 참여자 일부가 작품 제작에 집중시

간을 할애하여 타 참여자들과 교류할 시간이 부족했음을 표현한 결과로 추정된다.

[표 3] <꿈으로 이어가는 봄날의 미술관: 마음열기+치유 공연> 참여자 만족도 평가 유형

기준	평가 내역
참여접근성	프로그램 참여 장소의 접근성이 최적의 위치에 있다.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용이하다. 매우 그렇다: 44.6, 그렇다: 41.5%, 보통: 6.5%, 그렇지 않다: 6.5%, 전혀 그렇지 않다: 1.5%
참여방식	대면 현장 참여: 53%, 비대면 참여: 32%, 대면/비대면 동시참여: 3%
정보접근성	본 미술관 프로그램 참여 정보를 알게 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1순위-치료센터/복지관의 정보 공유: 44.6%, 2순위-사회복지사, 치료사, 지인 소개: 36.9%, 3순위-미술관 홈페이지: 4.6%, 4순위-다양한 SNS 채널, 유튜브: 3.1%
안전성/ 용이성	체험 중심 프로그램에 제공된 미술 재료와 감상 학습 자료들은 안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히 다를 수 있었다. 매우 그렇다: 33.8%, 그렇다: 47.7%, 보통: 10.8%, 그렇지 않다: 7.7%,
성취감/ 만족감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가장 만족스러운 점들을 선택하십시오. 1순위-프로그램 구성과 세부 콘텐츠 33.8% 2순위-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27.7% 3순위-체험형 창작 작품 결과물 26.2% 4순위-체험료 지원 외 기타 12.3%
사회성 회복력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미술관에서 실천하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충분히 성찰했다. 매우 그렇다: 44.6%, 그렇다: 41.5%, 보통: 6.5%, 그렇지 않다: 6.5%, 전혀 그렇지 않다: 1.5%
자기효능감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에게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인들에게 추천하겠다. 매우 그렇다: 73.8%, 그렇다: 18.5%, 보통: 7.7%
지속가능성	추후 미술관 연계형 프로그램 및 해설 수업에 꾸준히 참여하겠다. 매우 그렇다: 75%, 그렇다: 22%, 보통: 3%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 제작에 다루기 쉬운 재료가 제공되기 를 희망함.(바느질, 한지접기 등이 어려움)</li> <li>공예수업에서 작품 제작 나이도가 높아서 약간 부담되고 강사의 도움이 자주 필요함.</li> <li>개인이 신청하기에 정보가 다소 부족하므로 대외적인 홍보와 알림이 더 많았으면 함.</li> <li>미술관 위치와 대중교통이 애매한 위치여서 장애인 관련 센터 중심으로 이웃리치 방문 교육이 더 필요함.</li> <li>가족 참여 프로그램의 종류의 참여 횟수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li> <li>공공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미술관 수업 신청에서 개인정보 요구사항이 많음</li> </ul>

개인의 자신감 회복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자기호능감'의 결과는 92% 이상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미술관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응답도 97%를 차지하여 다수 참여자들이 미술관의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요구하는 희망도 높다는 잠재적 니즈를 보여준다. 본 결과는 장애·비장애인 통합형 프로그램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융합형 수업을 중점으로 팀이나 그룹 형태로 다같이 함께 참여하는 만족도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특별한 시각적 선호도가 높고 특정 영역에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술관의 감상 및 체험 활동이 자신감을 키우고 자기 호능감 높이기 훈련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미술 표현 활동의 수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본인의 의지와 상황을 언어로 조리있게 표현하는 향상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A 미술관 프로그램은 둥근 형태의 프레임 안에 그 물망을 엮어가는 방식으로 바느질로 작품을 완성하는 드림캐쳐 제작 수업, 리본 원단을 활용하여 바느질 기법을 응용하여 스티치 방식으로 자수를 놓는 리본자수 액자 제작 수업 등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의 유형으로 진행되었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은 실과 리본, 바늘, 나무 소재의 원형 프레임 등을 기본 재료로 활용하여 '바느질' 기법을 적용한 공통적인 진행 과정을 통해 '상호 간 이어주기'→'서로 연결하기'→'다함께 맞기' 과정으로 전개됨으로써 소통과 공감을 형성하는 호혜적 결과로 확장된 점이 특징이다. 섬세한 표현 기법이 적용되는 미술관 공예체험 수업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평소 누적된 갈등의 관계를 예술적 치유로서 개선하며 서로의 이해를 통해 마음 화복의 과정으로 연계된다. 이는 집단 예술체험 활동의 경험을 정서적 교감으로 환원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4-2. 장애·비장애인 통합활동형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 제안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강점을 더욱 의미있게 계발하면서 잠재적인 재능과 미적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선사한다. 직접 창작 활동으로 구현해보는 체험학습, 전시기획자와 도슨트에게 듣는 전시 해설, 작가와 전문가를 초빙해서 참여하는 교양 프로그램 등은 자발적으로 직접 듣고 보고 느끼며,

공감각적인 경험과 체득을 통해 교육 경험의 기회를 넓히는 액티브 러닝의 적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액티브 러닝은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중심 학습으로 정의되며, 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 배움의 환경 내에서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과 교육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술관 액티브 러닝은 감상 서비스, 관광, 휴가의 개념을 넘어 문화예술을 통한 내면의 통찰력을 높이고 누구에게나 열린 시민교육의 중심지 역할에서 중요한 문화적 매개가 된다.<sup>13)</sup> 미술관은 관람객의 입장에서도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작품을 관람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전시해설 자체만으로는 미술관 전시회가 주는 특별한 감성과 개인의 이해·공감의 폭이 넓어지기 어려운 한계도 있기 때문에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비중있게 다루는 추세이며, 능동적 참여 중심의 액티브 러닝은 미술관 교육의 융합형 학습 모델 설계에 큰 기반이 된다.

[표 4]는 2021년~2022년 기간 동안 A 미술관의 프로그램 준비/진행/종료후 총평가 등의 3분기 기간 동안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FGI를 통해서 수집된 주요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관 학예전문인력 3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문가 5인,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교수 포함) 4인, 2021 프로그램 담당 특수 보조강사팀 6인, 발달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참여자 8인 등으로 구성된 심층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취합된 세부 평가 내용과 향후 교육 기획 개선방안에 대한 공통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술관 학예인력 전문가 그룹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주체기관으로서 독특한 차별화 전략과 섬세한 작업이 적용되는 완성도 높은 교육 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식하지만 체험 재료의 일부 가공이나 작품 제작의 과정을 효율화 하는 연구와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장애인 그룹과 함께 하는 수업 내에서도 장애의 경증, 중증에 따라 참여자들의 작업 소요 시간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에듀케이터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이 분명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실무책임 그룹과 구립 장애인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상담가 및 사회복지사 그룹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연결성 있는 교육 활동이 제공되면서 장애인

13) 양연경, "A Study on the Trends of 'Museum Week Program' in Korea and the Necessity for Effective Museum Active Learning", 2022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하계 국제초청 디자인 컨퍼런스,  
한국디자인문화학회, p75, 2022. 요약.

자녀들에게 사회적 경험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공공지원 사업을 통해 미술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이 상호 컨소시엄을 맺고 미술관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질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으며, 한편으로는 행정 절차의 까다로운 결재과정이 유연하게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함을 피드백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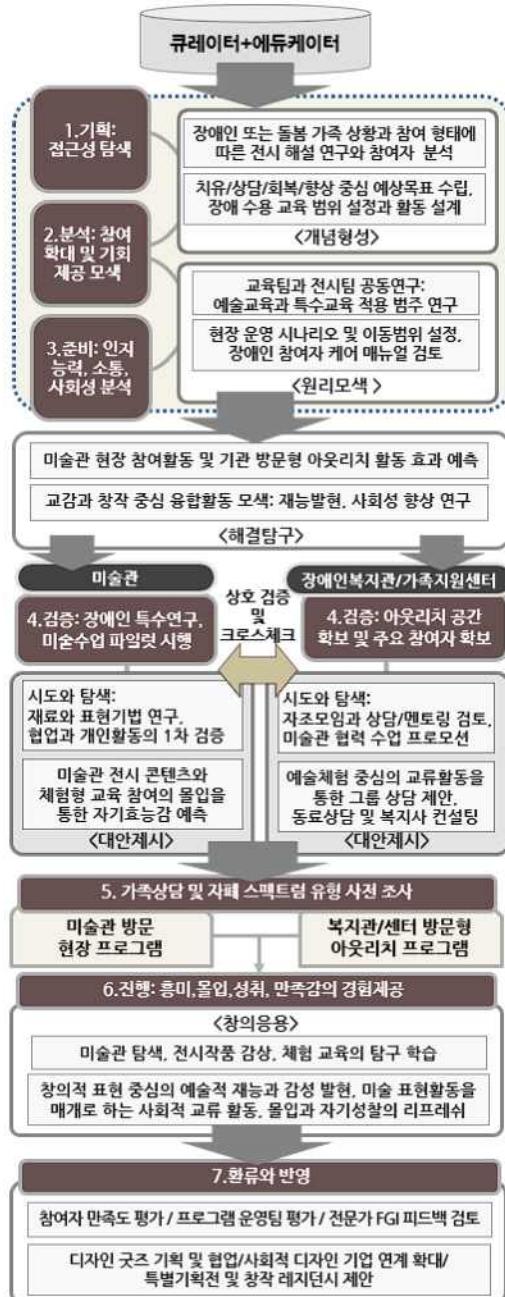
예술전문강사로 활동한 TA(Teaching Artist)와 문화예술육사, 대학교수 그룹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가능한 발달장애인 그룹을 중심으로 미디어 플랫폼과 SW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으로 미술관 프로그램 개발의 효과를 기대해본다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치료와 치유 중심의 미술관 교육이 문화적 고립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안되었다. 현장 내 미술관 특수교육 보조강사 팀원들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부 과정들의 난이도 격차가 큰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재료, 연출 기법, 참여자 간의 교류 등에 있어, 여유있는 시간 배분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장애인 참여자의 돌발 상황에 노련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장애인 돌봄 가족 참석자들은 대체로 장애인 돌봄 가족 자조모임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개인보다는 모임과 그룹 활동이 동기부여가 강함을 제시하면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의 참여에 있어 물리적인 접근성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과 더불어, 활동보조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돌봄 가족의 문화예술 소비 욕구가 충족되기 원하는 바람을 나타내었다.

발달장애인학생 전환교육의 연구 사례들을 분석해볼 때, 교사 중심의 전환교육 연수기회 확대, 성인기·직업·상급학교 전환 등에 대한 다양한 전환교육 연구 확대,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력형 개별화 교육 연구의 확대 등이 세심한 접근과 구체적인 시사점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sup>14)</sup> [그림 5]는 자폐 스펙트럼 발달장애인과 가족참여형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준비·운영·사후평가 단계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미술관 융합교육을 설계할 때, 내부 전문인력들과 외부 전문가 협력의 상호 협의 조건, 장애인 전문 기관들과 컨소시엄 진행, 교육 구성 프로세스의 주요 흐름과 단계별 체크 사항들을 정리했다.

14) 박지현, 이미지, 황지은, 교사인식에 바탕한 국내 발달장애인학생 전환교육 연구 탐색: 중요도, 실행도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인연구*, 23(1), pp167-168, 2021, 요약.

[표 4] 자문평가 및 FGI 요약

전문가 그룹	발달장애인 및 돌봄 가족 대상 미술관 프로그램 필요성 총평가
• 전시 큐레이터(A): 58세(男) • 에듀케이터(B): 33세(女) • 교육어시스터트(C): 31세(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느질, 뜨개질, 자수(수놓기) 등의 활동은 섬세한 작업을 많이 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술체험형 프로그램에서 일부 과정을 효율적으로 단축하여 쉽게 제작하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기획해야 함.</li> <li>• 개인의 경험과 장애 경증에 따라 체험형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간극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실습 담당 에듀케이터와 현장 운영 디렉터로서의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이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겠음..</li> </ul>
• 장애인센터장(D): 57세(女) • 장애인센타팀장(E): 43세(男) • 사회복지사(F): 52세(女) • 사회복지사(G): 36세(男) • 돌로상담가(H): 51세(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OM 주제 연계형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고립되었던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문화 활동을 통해 함께 모여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기겼다는 점이 매우 의미있음.</li> <li>•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미술관 활동에 직접 초대되어 지속적인 참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연결성 있는 교육 활동이 장애인 자녀들에게 사회성 경험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계기가 됨.</li> <li>• 장애인가족 자조모임과 공공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문화예술 서비스의 컨소시엄이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됨.</li> <li>• 미술관과 연계된 참여활동을 통하여 큐레이터, 문화예술교육사, 미술특수교사 등이 함께 진행함으로서 외부활동과 감성적 체험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음.</li> <li>• 행정적 일부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담당자 결재가 매번 충복하게 피드백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개선되어야 하겠음.</li> </ul>
• 문화예술교육사(I): 44세(女) • 미술관 TA(J): 44세(男) • 대학교수(K): 55세(男) • 대학교수(L): 50세(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소통이 가능한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미디어 플랫폼, SW 콘텐츠 활용을 통한 ‘디지털 치료제’ 개념의 미술관 교육 서비스 구축을 권장함.</li> <li>• 장애인 가족들이 문화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정신건강 헬스케어 개념으로 미술 치료, 예술활동 심리치료 상담 등이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li> </ul>
미술관 특수교육 보조강사팀 (6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난이도 격차가 큰 편임. 재료 탐색, 작품 연출 노력, 참여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의 확대 등이 밀도있게 조정되어야 함.</li> <li>• 경증 발달장애인 교육은 기본 대화와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민감한 거부반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방식을 특수교육 차원에서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겠음.</li> </ul>
• 발달장애인가족 자조모임 참여자 (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가족 돌봄이 너무 힘들었는데, 픽업서비스 및 셔틀운영 등으로 이동성을 편리하게 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음.</li> <li>• 장기적으로 장애인 자녀와 초고령 노년층 부모를 돌보는 중장년층이 매우 힘든 상황임. 가까운 산책과 외출을 돋는 활동 보조의 개념으로 미술관, 박물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꼭 필요함.</li> <li>• 아웃리치 중심의 ‘찾아가는 체험학습’의 기회를 늘려주셨으면 함.</li> </ul>



[그림 5] 자폐 스펙트럼 발달장애인 및 가족참여 중심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설계

## 5. 결론

박물관·미술관은 문화예술 비대면 프로그램의 상대적 증가, 외부활동 제약에 따른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어려움 등으로 다수의 문화예술 전문 기관들은 온, 오프라인 병행 소통과 체험을 중심으로 일상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기획을 넓혀가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행동 루틴과 경험 지식을 통한 기억의 범주, 익숙함과 새로운 구분, 감정의 민감한 상태와 느낌 등이 빠르게 표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긍정의 경험으로 유도하여 사회성을 높이고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충분히 발현하는 기회의 장이 꼭 필요하다. 미술관 활동은 이와 같은 문화예술 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다양한 채널로 제공될 수 있으며, 임상과 지역사회 협력의 측면에서도 유용한 자원이 된다.

본 연구는 자폐 스펙트럼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접근성을 제시하며 미술관 교육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성과 창의적 재능을 함께 높여줄 수 있는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미술관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찾아가는 미술관', '아웃리치 강상교육',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창작체험 키트 공유 등의 방식을 고도화하여 '미술관에서 배우는 교육' 개념을 벗어나 '미술관이 찾아가는 시민교육'으로서의 뮤지엄 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돌봄 가족들의 개인 시간 확보의 기회를 늘리면서 돌봄의 공백 또한 미술관 교육으로 동시에 연계되어 문화 향유와 사회성 회복의 이중 강점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뮤지엄 프로그램의 기획과 확산, 물리적 인프라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미술관과 장애인단체 및 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미술관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장애인 연계 통합 프로그램은 공공 인프라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능하므로 미적 체험의 완성도와 더불어 행정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필요하다.

넷째,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 탐색을 도울 수 있는 미술관 액티브 러닝의 필요성을 연구하여 뮤지엄 현장 전반에 적용되는 통합형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으로 지역사회 미술관으로 공통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미술관에서의 뮤지엄 액티브 러닝은 참여자들이 예술작품과 기획자의 전시 내러티브 의도를 밀도있게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감성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스마트 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형 전시 가이드 활용, 퀴즈와 이벤트 참여 유도, SNS 연계형 작품 감상 의견 공유,는 미술관 학예인력팀 뿐만 아니라 타 분야

의 다수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과 지식, 물리적 공간의 유연한 오픈 운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애인 가족들의 지역 미술관 서비스 디자인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의 폭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게끔 문화예술 분야의 진로와 재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도록 상생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sup>15)</sup> 충분한 교감을 통해 모든 전시 관람객들과 치유 프로그램 참여 내담자들을 함께 이우르는 오픈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며, 다수 기관과의 컨소시엄형 미술관 융합교육의 지속가능성과 능동적 전환에 주력하는 책임감 또한 가져야 하겠다.

미술관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시도와 실험적인 접근성을 추구하면서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창의적인 재발견과 기술적 실현의 고도화를 함께 병행하는 추세이다. 특히 뇌과학 중심의 예술 감상교육 프로그램의 입체적인 접근성을 연구하는 바이오 학문 중심의 문화예술의 새로운 재해석도 추진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발전과 고기능 엔진이 탑재된 챗 서비스(Chat Service) 활용을 통해,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합리적인 서비스 디자인과 스마트 기술융합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털비꿈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미술관 활동은 장애인의 정서적 교감 확대를 위한 소통의 기회 넓히기와 섬세한 돌봄으로 이어지며, 장애인 시민의 욕구와 삶의 만족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추후 이러한 융합 활동은 재활과 재능 발현의 확산을 토대로 경제적 근로활동이 가능해지고, 장애인의 창작능력,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신체기능 증진, 예술치료, 재능 계발 등으로 효과성을 높임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개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긍정적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1. 김성남, 정유진, [발달장애 마음읽기], 소통과지원 연구소, 2020

15) 양연경, 남현우, [스마트 큐레이터 똑똑한 미술관], (주)박영사, 2021, p.280, 요약 재구성.

2. 양연경, 남현우, [스마트 큐레이터, 똑똑한 미술관], (주)박영사, 2021
3. 김고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모개입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2021, Vol.12, No.1
4. 김지원, 포용적 미술관에서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연구*, 2020, Vol.15, No.2
5. 박지현, 김동일,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지적장애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2022, Vol.24, No.1
6. 박지현, 이미지, 황지은, 교사인식에 바탕한 국내 발달장애인 학생 전환교육 연구 팀색: 중요도, 실행도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2021, Vol.23, No.1
7. 오로사, 조영아,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의 문제행동, 사회적 지원, 성격강점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2021, vol.20, No.3
8. 양연경, 경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미술관 교육 접근 방향 연구, 2022 부경대학교 초청 국제 디자인 학술발표,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2
9. 양연경, A Study on the Trends of 'Museum Week Program' in Korea and the Necessity for Effective Museum Active Learning, 2022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하계 국제초청 디자인 컨퍼런스,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2
10. 박정미, 통합교육환경에서 자폐 범주성 장애아동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1. 이민경 외 6인, 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연구: 대안 확대와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47, 2021
12. v.daum.net
13. www.ablenews.co.kr
14. www.imageroot.co.kr
15. www.nmf.or.kr
16. www.뮤지엄워크.kr